

IMF체제하의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식구조의 전환 -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김 완 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I. 서언

우리는 지금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동안 자랑해 오던 한국경제가 거덜이 나서, IMF를 포함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350억,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200억 등 총 \$550억이라는 IMF 구제금융 제공역사상 최대규모의 수혈을 받게 되었다. 작년 11월 21일까지만 해도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은 건실하여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던, 물러나간 재경원장관의 호언장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재경원장관의 주장과 같이 사실 실물경제상의 거시경제지표는 여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양호하였다. 예를 들면, 비교적 높은 GDP성장률, GDP에 대비해 무난한 외채규모(22%), GDP에 대비해 적은 국제수지 적자폭(3%), 높은 저축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위정자들이 치명적으로 간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외채관리와 적정 규모의 외환보유고 유지(3개월 수입액 규모)문제였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외환금융위기를 단지 외환부족이나 단기외채의 과다차입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보는 듯하다. 그러므로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불필요하고도 과도한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는 등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심히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환부족은 단지 외환위기의 현상에 불과하다. 위기의 본질은 우리 정서 속에 깊이 깔려있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근시안적, 배타적인 발상과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결함이다. IMF가 제시하는 무역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기업의 투명성 보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정부의 규제완화 등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다. 최근 미국의 Booz, Allen and Hamilton(부즈, 앨런 & 해밀턴)보고서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문제는 정부와 많은 국책연구소에서 수없이 논의 되었으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 진전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변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단호한 지도력의 부재 그리고 개혁, 개방에 대한 두려움, 확신부족,

피해의식 등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은 IMF의 구제금융을 「경제주권상실」, 「경제신탁통치」, 「군주같은 IMF」, 「IMF가 이번 기회에 한국경제를 말아먹으려고 한다」는 등의 극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시각의 차이인가? 외국 언론들은 ‘외환위기를 자초하여 몰락에 임한 한국경제에 IMF 및 국제사회가 수백억달러라는 돈을 들여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국사람들은 왜 이러한 감정적이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느냐고 우리는 매우 비이성적인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도산을 막으려면 빨리 지지부진한 국론 분열에서 벗어나 나라사향 금모으기운동과 같이(1월중 약 \$5억 흑자) 내부적으로 단합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고 더 튼튼한 나라경제 그리고 제주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IMF와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제도, 의식의 국제화가 궁극적인 난국극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IMF하에서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식구조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크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경제살리기범도민운동추진협의회” 와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II.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1. 외국인 투자

최근들어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국경장벽 완화 및 국내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국 상호간에 국제무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 세계경제의 통합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국제통계를 보면, 1983년 이래 연간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민간부문의 국제투자규모는 세계생산보다 4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매우 왜소하다. 1993년 한해동안 對中國 외국인 직접투자는 225억 달러에 이르러 1960년에서 1997년 7월까지 한국이 유치한 총규모를 능가한다. 더욱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비추어 지고 있다.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997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

면 우리나라의 국제화 부문은 조사대상국 46개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가장 낮은 45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나 국민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내국기업과는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 투자유인책까지 동원하면서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상의 차별은 여전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세계화(globalization)시대에는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한국인 '소유' 기업이기보다는 한국내 '소재'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장관으로 기용되었던 리이히 교수는 1991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국가의 역할」에서 미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한 지역에 불과하며, 세계경제와 분리하여 운영이 가능한 지역경제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범세계적 경제관을 피력하였다. 그는 미국기업의 경쟁력과 미국의 경쟁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기업의 국적은 의미가 없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리이히 교수는 미국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보다도, 기업이 국적이 어떻든 미국의 근로자를 도와주는 정부가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의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리이히 장관은 미국국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미국은 미국의 일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의 설치나 보조금의 지급을 자제하여야 하고, 그러나 어느 나라이건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내에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요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개선시키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직접투자의 유치는 예측불허의 투기적 자본의 이동과는 달리 장기외국자본의 도입을 통한 외환위기의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생산 및 고용창출, 기술이전, 선진 경영기법 습득 등의 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추진 논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M&A(합병과 인수)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에 의한 우호적 M&A

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된다. M&A를 적극 활성화할 경우 실업발생의 최소화, 구조조정의 원활화, 기업부채비율의 축소 등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얻게 된다. 최근 정부와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외국인의 주식취득 비율을 현행 10%에서 33.4%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외국인의 M&A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방화시대를 반영하여 제주도는 제주도를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시키는 계획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IMF 외환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의 對韓투자유치 및 기술도입을 촉진시키고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對日무역수지 역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일본의 대규모 對韓투자단 유치, ② 對日 산업기술협력 확대, ③ 벤처기업교류 지원, ④ 對日마케팅활동 지원 등 4개 핵심과제를 위주로 「98년도 한·일 산업기술협력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수행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는 일본의 대한투자단을 방문토록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일본투자단의 방문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투자단의 분야별로 전담 투자유치담당자를 지정하여 방문기간 동안 기업상담회 안내 등 일본기업을 밀착지원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對韓투자유치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현지투자설명회를 갖는 등 한·일 지방간 경제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은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MF관리경제시대를 맞아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창출효과가 큰 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선봉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 외국투자자들이 떠나가는 나라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없다. 미국이 벤처기업의 천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미국 특유의 기업가 정신과 간섭없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이다.

1980년대는 제조업 경쟁력에 있어서 일본에 대항할 나라가 아무도 없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첨단산업이 찬란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이제까지의 일본식 경영은 적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미국

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담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나,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구조조정에 실패했고 M&A도 거부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다. 한편,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자기완결형 대기업구조를 탈피하고, 즉 모든 것을 자기 회사내에서 다 처리하는 식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하는 부분만 자신들이 한다는 경영스타일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인텔사에서는 CPU생산에만 전문화하고 있지 다른 분야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즉, 자기들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전문화하고 나머지는 업무제휴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OECD에 가입한지 10개월 만인 1994년말 경제위기에 직면한 멕시코가 빠른 속도로 수습국면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수출확대가 실질적인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도 IMF 긴급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원화가치하락과 병행하여 정부는 해외시장개척, 무역금융의 원활한 제공, 대외무역을 위한 훈련, 컨설팅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수출지원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의 상향조정 및 규모확대를 위해 한은의 금융기관별 총액대출 한도를 확대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산업의 질적 개선은 우리나라 무역외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 멕시코대사 부인의 적절한 지적과 같이(1998년 1월 31일자 한국일보) 관광산업에 절대적 우위를 가진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외국 관광객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인프라를 쌓는 등의 국제화를 추진한다면 전보다 더 높은 국제신인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노비자 제주도 입국추진도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약간 다른 시각에서 정리하여 본다면,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의 한가지 공통점은 업종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관리능력 등 기업이 활용 가능한 생산요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보호장벽은 낮아지고 경쟁은 더 심해지는 환경하에서 비관련 다각화로 일류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만 모든 가용한 생산요소를 투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일 듯 하며, 기업이 바뀌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재벌기업도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에 비해 아직 규모(생산, 매출)가 작은 편이다. 따라서 전문화된 분야의 기업규모를 키워 나가는 데 장애가 되는 정부개입은 축소되어야 하며 업계도 세계전략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대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독과점업종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경쟁촉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소비절약운동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국내에서는 외화절약 및 소비절약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캠페인이 反수입 분위기로 변질 경우 자칫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외제 승용차라고 급유를 안해주고 못으로 굶느라 하면, 탑승자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밉코트가 못마땅하다며 면도날로 찢는 일도 벌어지고, 외국인을 광고모델로 썼다고 광고판을 떼어내라고 호통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산품을 애용하는게 바람직한 일이나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反할 수도 있다. 우리 제품은 수출하면서 외제품은 안쓰겠다면 무역은커녕 돈 빌려줄 나라도 없게 된다. 외제 중에도 호화사치품 과소비가 문제이지 생활용품이나 국내 생산 외제품까지 배척해서는 내수시장마저 멍들게 된다. 요즘 TV 드라마에도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장면이 많은데 이는 역시 바람직한 측면만 있는건 아니다. 시민단체들의 국산품 애용 캠페인 역시 내실있게 전개하는 건 좋으나 너무 과하면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 구매를 거부하는 부메랑 효과를 자초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최근 금모으기운동이 과열되고 변질되어 학교에서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금모으기운동 참여증서의 제출을 강요하자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금을 사서라도 참여증서를 낼 수 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다. 금모으기, 국산품 애용 캠페인은 나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승적으로 순수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조선일보, 1998년 2월 5일자)

최근 월라코리아는 IMF협정 타결 이후 「알고보면 국산품」이라며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월라코리아의 작년 실적은 내수 1,270억원, 수출 2억4천만달러, 내수

용 원자재 중 97%이상을 국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출제품도 원부자재의 65%를 한국산으로 사용하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다. 또 내수제품 가운데 750억원어치를 국내 하청업체들에서 생산하고 있다. 비록 「얼굴」은 이탈리아 브랜드이지만 「알맹이」 대부분이 국산이란 얘기다(한국경제신문 1월 23일자). IMF/세계화 시대에는 국내 불황이 우리의 내부분제라고 해서 무조건 외국의 간섭이 부당하다는 입장만을 고집하면 오히려 불리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념하여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자체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의 기회와 호기를 상실하여, 우리 잘못으로 급기야 외부의 힘을 빌어 피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IMF 구제금융을 전화위복과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 폐쇄적인 경제정책, 私益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압력,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세디요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의 위기극복이 경제개방, 무역자유화로 대표되는 자유화 정책이, 최선의 정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한국식 적당주의·온정주의적 발상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냉엄한 글로벌 경쟁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인, 기업인, 노동자, 가게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오늘의 위기야말로 내탓」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새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1998년 2월 6일 고용조정의 법제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대타협은 서로간 고통분담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역사적, 거국적 처사로 평가된다. 극한적 대립을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IMF위기를 극복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번의 노·사·정 대타협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되었고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